

국민 금융생활 안전 교육자료 · EDU-04

신용·대출·금리·부채 총비용

월 납부액의 착시를 피하고 총비용·금리변동·상환곤란까지 고려해 빚을 관리한다.

교수자용 지도서

본문 10.5pt 이상 · 내용 기준 2026-08-24 · NEXUS FMI 국민 금융생활 안전교육

교수자 안내

설명보다 학습자의 실제 기록·선택 이유·도움 요청 문장을 확인한다. 피해·채무·질병·가족갈등을 공개하도록 압박하지 않는다.

수업 목표

- 신용정보가 만들어지고 쓰이는 과정을 설명한다.
- 고정·변동금리와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을 구분한다.
- 이자·수수료·중도상환·연체 가능성을 합쳐 총비용을 비교한다.
- 상환이 어려워지기 전에 기록을 모아 조정과 상담을 요청한다.

교과 해설 · 왜 가르치고 왜 이 순서인가

대출은 받는 돈보다 갚는 약속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을 빌려도 금리·기간·상환방식·수수료에 따라 매달 부담과 총상환액이 달라집니다. 월 납부액만 작게 보이면 더 오래, 더 많이 갚을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금리·상환일·총비용을 먼저 배운 뒤에 상품 비교와 권리 행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수업이 보호하려는 생활영역

- 매달 필수생활비
- 연체 전 선택할 시간
- 신용정보
- 담보와 보증인의 재산
- 설명받고 비교할 권리

개념의 선후관계

순서	개념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이유
1	원금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2	금리와 이자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3	상환방식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4	총비용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5	연체	앞 개념을 사용해 다음 개념의 조건과 결과를 설명한다.

교수자가 지킬 설명 원칙

- 금리 계산 전에 원금·기간·상환방식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 대출을 선악으로 평가하지 않고 목적과 상환능력의 적합성을 판단하게 합니다.
- 광고금리와 실제 적용금리를 구분합니다.
- 상환곤란 징후가 있으면 EDU-14의 조정 경로로 즉시 연결합니다.

필수개념 지도표

원금

처음 빌린 돈 가운데 아직 갚지 않은 금액입니다.

- 생활 예: 100만 원을 빌리고 20만 원의 원금을 갚으면 남은 원금은 80만 원입니다.
- 반대 예: 지금까지 낸 돈 전체가 모두 원금을 줄였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연결: 이자는 남은 원금과 약정 조건을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 이해확인: 매달 10만 원을 냈으면 원금도 10만원 줄었나요?

도달 기준: 상환방식에 따라 일부는 이자일 수 있으므로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금리와 이자

금리는 비율이고 이자는 그 비율에 따라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 생활 예: 연 5%라는 금리와 이번 달 이자 금액을 구분해 봅니다.
- 반대 예: 5%라는 숫자를 전체 기간의 최종 비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금리·원금·기간·상환방식이 실제 이자와 총비용을 만듭니다.
- 이해확인: 금리가 같으면 총이자도 항상 같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기간과 상환방식이 다르면 총이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방식

원금과 이자를 어떤 순서와 금액으로 갚는지 정한 방법입니다.

- 생활 예: 원금균등과 원리금균등은 초기 부담과 총이자에 다를 수 있습니다.
- 반대 예: 월 납부액이 같으면 상환방식도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 연결: 상환방식은 월 부담·남은 원금·총이자에 영향을 줍니다.
- 이해확인: 월 납부액만 비교하면 충분한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남은 원금과 총상환액도 함께 봐야 합니다.

총비용

원금 외에 이자·수수료·보험료 등 계약으로 부담하는 전체 비용입니다.

- 생활 예: 대출 실행 수수료와 중도상환 비용까지 계산표에 넣습니다.
- 반대 예: 광고의 최저금리만 보고 가장 싼 대출이라고 정하는 것입니다.
- 연결: 총비용은 실제 적용금리·기간·상환방식·부대비용을 합쳐 비교합니다.
- 이해확인: 최저금리가 표시되면 누구나 그 금리를 받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실제 적용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

약정한 날까지 갚아야 할 금액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 생활 예: 결제일 잔액이 부족해 상황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 반대 예: 한 번 늦은 것은 아무 영향도 없다고 단정하는 것입니다.
- 연결: 연체는 추가비용·신용·추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예상 단계에서 상담합니다.
- 이해확인: 상황이 어려울 것 같아도 결제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연체 전에 금융회사에 가능한 조정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개념 설명 수업안

각 단원은 질문으로 시작하고, 원리 설명-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교정-확인문제의 순서로 지도합니다.

1. 원금·이자·금리

도입 질문: 대출에서 무엇을 갚는 걸까요?

원금은 빌린 돈, 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 금리는 원금에 대한 이자 비율입니다. 같은 금리라도 원금과 기간이 다르면 실제 이자는 달라집니다.

광고에 보이는 최저금리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확정금리가 아닐 수 있으므로 내 계약의 적용금리를 확인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실제 빌리는 원금을 적습니다.
- 판단 순서 2: 적용금리와 변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기간 동안 낼 이자와 수수료를 합산합니다.
- 시범 사례: 연 5%라는 숫자만 같아도 1년간 100만원을 빌린 경우와 5년간 2천만원을 빌린 경우의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 바로잡을 오해: 금리가 낮으면 무조건 싼 대출이라는 생각은 틀립니다. 수수료와 기간을 포함한 총비용이 필요합니다.
- 확인 질문: 두 대출의 금리가 같으면 비용도 같을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원금·기간·상환방식·수수료에 따라 총비용이 달라집니다.

2. 고정·변동금리와 상환방식

도입 질문: 매달 갚는 돈은 왜 바뀔까요?

고정금리는 약정 기간 동안 금리가 정해져 있고, 변동금리는 기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변동금리는 앞으로의 납입액이 커질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은 원금이 줄어드는 속도와 초기 납입액, 총이자가 다릅니다.

- 판단 순서 1: 금리 변경 기준과 주기를 찾습니다.
- 판단 순서 2: 월 상환액과 마지막 상환액을 확인합니다.
- 판단 순서 3: 금리가 오르거나 소득이 줄 때 감당 가능한지 계산합니다.
- 시범 사례: 만기일시상환은 매달 이자만 내어 초기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만기에 원금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합니다.
- 바로잡을 오해: 월 납입액이 가장 작은 방식을 가장 싼 방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원금이 남는 속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 확인 질문: 변동금리 대출은 현재 금리만 계산하면 될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금리 상승 때의 월 상환액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3. 총상환액과 상환여력

도입 질문: 빌릴 수 있는 금액과 갚을 수 있는 금액은 같을까요?

대출한도는 금융회사가 빌려줄 수 있다고 판단한 범위이지, 내 생활이 건널 수 있는 안전금액이 아닙니다.

상환여력은 소득에서 세금·필수생활비·기존 채무와 예상되는 큰 지출을 뺀 뒤 판단해야 합니다.

- 판단 순서 1: 월 실수령소득을 적습니다.
- 판단 순서 2: 필수생활비와 기존 상환액을 뺍니다.
- 판단 순서 3: 소득 감소와 금리 상승 상황에서도 남는지 확인합니다.
- 시범 사례: 월급 300만원이어도 주거비·부양비·기존대출이 크면 새 대출의 안전한 월 상환액은 매우 작을 수 있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승인된 한도까지 빌려도 안전하다는 생각은 틀립니다. 승인과 생활 안전은 다른 판단입니다.
- 확인 질문: 은행이 3천만원을 승인하면 그 금액은 감당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내 현금흐름과 최악 상황으로 별도 계산해야 합니다.

4. 연체와 신용정보

도입 질문: 하루 늦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연체는 약정한 날에 갚지 못한 상태로 연체이자, 추심, 서비스 제한과 신용정보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향은 금액·기간·채무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려움이 예상될 때 연락을 피하면 선택지가 줄 수 있으므로 연체 전 상담과 조정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판단 순서 1: 결제일 전에 예상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 판단 순서 2: 금융회사에 상환일정 조정 가능성을 문의합니다.
- 판단 순서 3: 공적 채무상당기관의 대상과 절차를 확인합니다.
- 시범 사례: 다음 달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고금리 대출을 새로 받기보다 현재 채무·소득자료를 준비해 공식 상담을 받습니다.
- 바로잡을 오해: 연체기록을 없애 준다는 광고를 믿고 선입금을 하면 안 됩니다. 공식 기관과 계약 조건을 확인합니다.
- 확인 질문: 돈이 부족해질 것 같아도 연체된 뒤 상담하는 것이 나을까요?

도달 기준: 아닙니다. 가능하면 연체 전에 금융회사와 공적 상담기관에 문의합니다.

시범풀이 지도

월 납부액이 작은 대출

A는 2년, B는 5년 상환이며 B의 월 납부액이 더 작습니다.

- 결정: 월 납부액뿐 아니라 전체 기간을 비교합니다.

- 정보: 실제 금리·수수료·총상환액을 적습니다.
- 위험: 기간이 길면 총이자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행동: 생활비를 뺀 뒤 감당 가능한 월 상환액을 계산합니다.
- 기록: 설명서와 상환표를 보관합니다.

60분 핵심 수업에서도 '왜 배우는가·필수개념·개념 작동 과정·시범풀이'를 생략하지 않습니다. 사례 수를 줄이되 기초학습은 줄이지 않습니다.

보강 주제 지도안

기존 기초개념을 최근 생활 장면에 적용합니다. 적용 조건과 제도는 바뀔 수 있으므로 출처와 검토일을 함께 확인합니다.

대출 계약 직후 권리는 상품과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가능 여부·기간·효과를 일찍 확인해야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 않을 것: 중도상환과 청약철회를 같은 절차로 보거나, 모든 대출이 자동 취소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철회 대상, 기산일, 원금·이자·부대비용 반환 방법, 신용정보 반영 여부를 계약서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취소를 검토한다면 즉시 금융회사 공식 창구에 서면 문의하고 접수기록을 남깁니다.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 권리 · 검토 2026-08-24

<https://www.fsc.go.kr/no040101?cnld=1253>

자동차 할부·리스·렌트는 월 납입액이 아니라 총비용으로 비교합니다

보증금·선납금·수수료·보험·정비·만기 인수금과 중도종료 비용이 계약마다 다릅니다.

하지 않을 것: 월 납입액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과 만기 의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계약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계약기간 전체 지급액, 소유권, 주행거리·원상복구 조건, 중도해지 비용, 만기 선택을 같은 표에 적습니다.

지금 할 일: 최악의 경우인 조기 종료·사고·소득감소 때 부담할 금액까지 계산한 뒤 결정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검토 2026-08-24

<https://fine.fss.or.kr/>

DSR은 대출 한도보다 먼저 상환능력을 살피는 지표입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여러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함께 보아 빚을 감당할 수 있는지 살피는 지표입니다.

하지 않을 것: 담보가치나 금융회사가 제시한 한도만 보고 실제 상환 부담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것: 어떤 대출과 소득이 계산에 포함되는지, 스트레스 금리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신청 시점의 금융회사 설명과 공식 안내에서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 현재 금리와 금리가 오른 경우의 월 상환액을 예산표에 각각 넣고, 필수지출 뒤에도 감당할 수 있는지 비교합니다.

공식 근거: 금융위원회 ·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 · 검토 2026-08-24

<https://www.fsc.go.kr/no010101/84617>

60분 핵심 수업안

시간	활동	교수자 확인
0~5분	생활장면·학습 이유	이 학습이 지키는 생활영역 확인
5~15분	용어와 개념카드	뜻·예·반대 예·개념 관계 확인
15~30분	개념 작동 과정	원리·판단 순서·생활 사례·오개념 확인
30~38분	시범풀이	교수자가 판단과정을 소리 내어 보여 줌
38~50분	사례 1개	즉시·나중 결과와 추가정보 비교
50~60분	행동·권리·다음 학습	기초 확인문제와 실행 날짜 확인

90분 수업안

시간	활동	산출물
0~10분	진단·학습계약	개인정보·발언 선택권 확인
10~25분	Part 2·3 구조읽기	용어 8개 생활 예시
25~45분	Part 4 비교도구	비교표 1장
45~70분	사례 5개 모둠실습	선택·근거·추가정보·다음 행동
70~82분	권리·지원 역할연습	도움 요청 문장
82~90분	사후평가·30일 약속	개인 행동계획

다섯 사례 운영 질문

1. 고정과 변동

현재 변동금리가 낮아 보인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
- 추가정보: 미래 금리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상승 시나리오와 고정금리 총비용을 함께 비교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오늘 금리만 보고 선택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은행 직원의 말만 기억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2. 만기일시의 착시

월 이자만 작아 보여 큰 대출을 받으려 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
- 추가정보: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만기 원금 마련 방법과 총이자를 적는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월 납부액만 비교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만기 때 새 대출로 갚기로 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3. 카드로 돌려막기

결제일마다 새 대출로 이전 대출을 갚는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
- 추가정보: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모든 채무와 필수생활비를 적고 즉시 상담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한도를 더 늘린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연락을 피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4. 가족 보증

가족이 형식일 뿐이라며 보증을 부탁한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
- 추가정보: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보증 범위·최고액·기간과 대신 갚을 최악의 경우를 확인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가족이므로 서명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서류를 읽지 않고 인감만 준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5. 소득 감소

휴직으로 다음 달부터 상황이 어렵다.

- 처음 보이는 정보만으로 무엇을 결정하려 했는가?
- 각 선택의 즉시 결과와 한 달 뒤 결과는 무엇인가?
- 핵심 피드백: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
- 추가정보: 계약·잔액·소득·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

선택	교수자가 물을 말	피드백 초점
A	연체 전에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상담한다.	근거·공식 확인·후속 기록
B	독촉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C	불법 대출 광고에 연락한다.	즉시 편의와 나중 위험을 나누어 말하기

관찰할 수행

- 학습자가 선택의 이유를 목적·비용·위험 중 둘 이상으로 설명하는가?
- 추가정보가 나오면 처음 결정을 수정할 수 있는가?
- 공식 확인처와 남길 기록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

오개념 바로잡기

오개념: 신용점수만 높으면 대출이 안전하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월 납부액이 같으면 총비용도 같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오개념: 보증은 돈을 직접 빌리는 것이 아니다

지도: 예외 없는 문장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계약·조건·공식 확인 위치를 찾게 한다.

평가 해설

1. 신용·대출·금리·부채 총비용에서 가장 먼저 할 일로 알맞은 것은?

정답 A.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

A.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

B. 이 선택은 '광고의 혜택 문구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

C. 이 선택은 '문제가 생긴 뒤에 기록을 만든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

D. 이 선택은 '주변 사람이 택한 방법을 그대로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결정은 내 상황과 목적을 먼저 적는 데서 시작한다. 필요금액과 목적을 먼저 줄인다.

2. 비교표에 반드시 함께 넣어야 할 요소는?

정답 B. 비용·위험·기한·보호·증거

A. 이 선택은 '현재 보이는 금액만'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B.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C. 이 선택은 '광고 순위와 후기 수'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D. 이 선택은 '친구가 선택한 상품'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좋은 결정은 현재 가격뿐 아니라 총비용, 위험, 기한, 권리와 증거를 같은 표에서 비교한다.

3. 계약이나 거래 뒤 가장 안전한 기록 방법은?

정답 C. 계약서·설명·거래·접수번호를 원본 형태로 보존한다.

A. 이 선택은 '기억해 둔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B. 이 선택은 '상대방이 보관하므로 지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C.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D. 이 선택은 'SNS에 개인정보와 함께 올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분쟁과 점검에는 날짜·상대·조건을 확인할 원본 기록이 필요하다.

4. 제도나 숫자가 바뀔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정답 C. 신청·계약 시점의 공식 기관 안내와 기준일을 확인한다.

A. 이 선택은 '오래된 블로그를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B. 이 선택은 '교육자료 숫자를 영구 기준으로 쓴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C.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D. 이 선택은 '광고 상담원 말만 따른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한도·요건·기한은 바뀔 수 있으므로 적용 날짜와 공식 출처를 함께 확인한다.

5. 곤란이나 피해 징후가 생겼을 때 알맞은 태도는?

정답 C. 추가 피해를 멈추고 사실·기한·증거를 갖춰 공식 창구에 상담한다.

A. 이 선택은 '추가 차입·송금으로 시간을 번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B. 이 선택은 '연락과 서류를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C.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D. 이 선택은 '개인정보를 공개해 도움을 구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빠른 차단, 증거 보존, 공식 상담이 선택지를 지킨다.

6. 사례 '고정과 변동'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상승 시나리오와 고정금리 총비용을 함께 비교한다.

A.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 미래 금리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

B. 이 선택은 '오늘 금리만 보고 선택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 미래 금리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

C. 이 선택은 '은행 직원의 말만 기억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 미래 금리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감당 가능한 변동폭을 먼저 정한다. 미래 금리를 맞히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버틸 수 있는지 본다.

7. 사례 '만기일시의 착시'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만기 원금 마련 방법과 총이자를 적는다.

A.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B. 이 선택은 '월 납부액만 비교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C. 이 선택은 '만기 때 새 대출로 갚기로 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마지막 원금까지 상환계획에 넣는다. 차환은 자동으로 보장되지 않는다.

8. 사례 '카드론 돌려막기'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모든 채무와 필수생활비를 적고 즉시 상담한다.

A.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B. 이 선택은 '한도를 더 늘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C. 이 선택은 '연락을 피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연체 전 상담이 선택지를 넓힌다. 새 빚으로 상환일만 미루면 총비용과 위험이 커질 수 있다.

9. 사례 '가족 보증'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보증 범위·최고액·기간과 대신 값을 최악의 경우를 확인한다.

A.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

B. 이 선택은 '가족이므로 서명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

C. 이 선택은 '서류를 읽지 않고 인감만 준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보증도 내 부채로 계산한다. 주채무자의 사정이 나빠지면 보증인에게 청구될 수 있다.

10. 사례 '소득 감소'에서 가장 안전한 행동은?

정답 A. 연체 전에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등에 상담한다.

A.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 계약·잔액·소득·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

B. 이 선택은 '독촉이 올 때까지 기다린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 계약·잔액·소득·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

C. 이 선택은 '불법 대출 광고에 연락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 계약·잔액·소득·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

D. 이 선택은 '공식 확인 없이 계약이나 거래를 진행한다.'에 머물러 중요한 위험·기한·공식 확인을 놓칠 수 있다. 예상되는 곤란도 미리 알린다. 계약·잔액·소득·필수비용 기록을 준비하면 상담이 정확해진다.

민감한 상황 대응

- 피해·연체·가족갈등 경험을 전체 앞에서 말하게 하지 않는다.
- 즉시 위험·범죄·자해 위험이 있으면 교육보다 안전과 기관 연계를 우선한다.
- 교수자가 법률·세금·투자 결과를 단정하지 않고 적용 시점의 공식 상담을 연결한다.
- 개인 활동지는 수거를 최소화하고 보관·폐기 기준을 사전에 알린다.

수준별·상황별 조정

학습 상황	조정 방법	지켜야 할 기준
청소년·초보	용어를 생활 장면과 그림으로 먼저 설명	계약 책임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음
저문해·이주민	한 문장 한 정보, 숫자·날짜를 크게 표시	통역·쉬운 자료 제공 여부 확인
고령·시각 불편	큰 글씨와 소리 내어 읽기, 충분한 응답시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본인 의사 확인
피해 경험자	가상사례와 비공개 선택지 사용	경험 공개·책임 추궁 금지

수행평가 루브릭

기준	기초	도달	확장
구조 이해	용어를 찾는다	돈·책임·기한을 설명한다	예외와 변동 가능성을 말한다
비교 판단	한 요소를 본다	총비용·위험·권리를 비교한다	최악 시나리오와 중단 기준을 정한다
행동·기록	행동을 고른다	날짜·근거·증거를 적는다	공식 기관에 묻는 문장을 작성한다
권리·지원	기관을 안다	알맞은 기관을 고른다	다음 절차와 기한을 확인한다

자료 업데이트 점검

내용 기준일 2026-08-24, 다음 정기점검 2026-11-20. 숫자·기한·기관명·URL·법령 개정 여부를 수업 전에 다시 확인한다.

점검 대상	질문	기록
법·제도	시행일·대상·예외가 바뀌었는가	확인 URL·날짜
숫자·기한	한도·세율·신청기한이 유효한가	공식 문서 제목
기관·서비스	명칭·전화·주소·절차가 유효한가	접속·전화 결과
사례	과장·낙인·단정이 없는가	수정 사유

교수자료 A · 개념·경계 지도

이 모듈이 담당하는 역량과 다른 모듈로 넘겨야 할 내용을 구분한다.

영역	이 모듈에서 다룰 것	수업에서 단정하지 않을 것
이해	신용정보가 만들어지고 쓰이는 과정을 설명한다.	개별 계약의 최종 법률효과
비교	고정·변동금리와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상환을 구분한다.	미래 가격·금리·수익의 예측
행동	이자·수수료·중도상환·연체 가능성을 합쳐 총비용을 비교한다.	모든 학습자에게 같은 정답 강요
권리	상환이 어려워지기 전에 기록을 모아 조정과 상담을 요청한다.	기관의 최종 결정·판결 결과

교차 모듈

- EDU-14 연체·채무조정

교수자료 B · 수업 전 최종 검증표

수업 당일에도 공식 근거와 접근성을 다시 확인한다.

검증 항목	완료	메모
공식 URL 접속과 적용 기준일	☐	
한도·기한·기관명 최신성	☐	
본문·화면 글자 크기와 대비	☐	
활동지 개인정보 최소화	☐	
민감 경험 비공개 선택권	☐	
상담·신고 연결 방법	☐	
60분·90분 시간 배분	☐	
사전·사후평가 동일 역량	☐	

공식 확인처

- 금융위원회 · 금융소비자 권리 안내 · <https://www.fsc.go.kr/edu/cardnews?cnId=1571>
- 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 <https://fine.fss.or.kr/>
- 신용회복위원회 · 채무조정·상담 · <https://www.ccrs.or.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법률상담 · <https://www.klac.or.kr/>